

안전 취약 보강토옹벽 집중점검 ... 민간전문가 상시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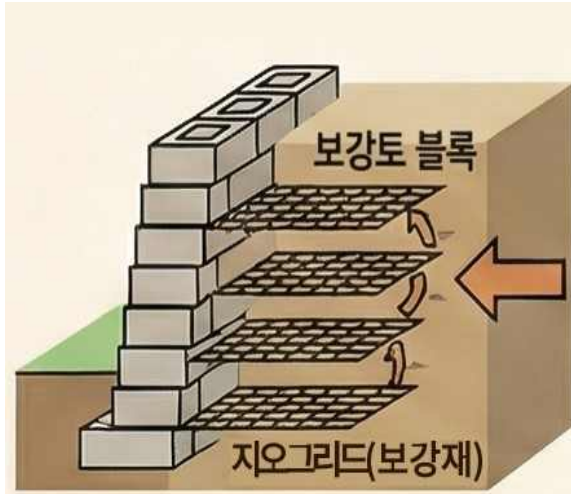
- 18일부터 위험도가 높은 60개소 대상 특별점검 실시
- 한국시설안전협회 지원을 통해 현장 전문가 밀착 관리 체계 구축

- 정부가 안전 취약 보강토옹벽을 집중점검하고, 상시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오산 사고 옹벽과 유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보강토옹벽 60개소를 특별점검한다.
- 국토교통부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(2.26)한 오산 옹벽 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, 「시설물안전법」상 관리 대상인 보강토옹벽 2,526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(3.18~4.30)하였다.
 - 전수조사 결과, 사고 옹벽과 유사하게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된 형식의 옹벽이 총 363개소로 파악되었으며, 그 중 배수 상태(누수 흔적, 배수로 퇴적 등) 및 변형 상태(상부 지반 침하, 전면 벽체 변형 등)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위험도가 높은 취약 시설물 총 60개소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최종 선별하였다.
 - 사고 옹벽과 형식이 다른 일반 보강토옹벽도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 221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지방정부 등 관리·감독기관이 점검하도록 한다.
-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토부·국토안전관리원·지방정부·관리주체·민간 전문가(한국시설안전협회 소속, 「건설기술진흥법」상 특급 기술자)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.

- 점검반은 용벽의 전면부 누수 흔적, 배수로 균열 및 파손, 상부 지반 침하 및 포트홀 발생 여부, 전면 벽체 및 L형 용벽의 변형 상태 등을 현장에서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.
- 점검 결과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 용벽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신속한 보수·보강, 안전성 검토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점검 대상 용벽 60개소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, 한국시설안전협회 지원을 통해 각 시설물별 담당 현장 전문가를 매칭하여, 상시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.
- 현장 전문가는 향후 3년간 안전점검, 관리주체 자문 등을 수행하며,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밀착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이성민 시설안전과장은 “취약한 구조를 가진 보강토용벽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특별점검의 핵심”이라며,
- “민간 전문가와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이성민 (044-201-4598)
		담당자	사무관	구단일 (044-201-3587)
담당 부서	한국시설안전협회	담당자	사무국장	박용복 (02-567-1307)
담당 부서	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	책임자	실 장	이종건 (055-771-8320)
		담당자	부 장	정민형 (055-771-8321)

□ 보강토옹벽 개념



흙과 보강재의 마찰력으로
버티는 구조
블록뒤 흙속에 지오그리드
(보강재)를 깔아 흙과 보강재를
하나의 흙구조체로 일체화시켜
토압에 저항

□ 오산 옹벽 붕괴 과정

